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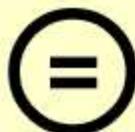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시 교육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신혜진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시 교육

지도교수 조 동 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신 혜 진

신혜진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8월 27일



주심 문학박사 남 송 우 (인)

위원 문학박사 김 남 석 (인)

위원 문학박사 조 동 구 (인)

<차 례>

<ABSTRACT>

<b>I. 서론</b> .....	1
1. 연구 목적 및 연구사 검토 .....	1
가. 연구 목적 .....	1
나. 연구사 검토 .....	4
2. 연구 방법 .....	10
<b>II. 창의성과 시 교육</b> .....	12
1. 창의성 개념과 구성 요소 .....	13
가. 창의성의 개념 .....	13
나. 창의성의 구성 요소 .....	17
2. 시 교육에서의 창의성 .....	20
3. 교과서 학습활동에 나타난 창의성 요소 분석 .....	24
<b>III. 창의성 개발 및 신장 방안</b> .....	33
1. 창의적 문제해결 .....	33
2. 창의성 신장 기법 .....	37
<b>IV.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시 교수·학습 방안</b> .....	43
1.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의 설계 .....	43
2.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 .....	48
가. 계획 단계 .....	51
나. 진단 단계 .....	52
다. 지도 단계 .....	52
라. 내면화 단계 .....	58
<b>V. 결론</b> .....	60
참고 문헌 .....	64

# Modern Poetry Education To Improve Creativity

Shin Hye Jin

*Korea Language Education Major  
The Graduated School Education  
Pukye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Modern society is knowledge-based. The advance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has brought a drastic change to our lives, and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very crucial for value creation. A proficient ability to handle knowledge and information is mandatory for modern society as one of higher thinking faculty. As a matter of fact, that is the highest thinking faculty that incorporates all sorts of thinking, which is called creative thinking.

The 7th national language arts curriculum designed to keep up with the 21st century's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aims at boosting the creativity of students. Although the curriculum apparently sought after the improvement of creativity, it didn't make an explicit definition of creativity and what makes it up nor included adequate teaching-learning methods about that. Likewise, every school fails to teach students in a manner to foster their crea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lve into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creativity and to analyze the creativity-related elements of learning activities in the poetry segment of textbooks. In fact, the kinds of learning activities that

could stimulate divergent thinking, which was of use for creativity development, were inadequate. Therefore a creative problem-solving model and various creativity-boosting techniques were explored in this study.

A teaching-learning model was designed based on a general literary instruction model and Osborn's creative problem-solving model. The newly devised model intended to bolster creativity consisted of four different stages: planning, diagnosing, teaching and internalizing. And the teaching stage was subdivided: problem discovering, idea conceiving and receiving. How to apply the teaching-learning model to the poetry units of the 7th national middle school language arts textbooks was discussed.

It's found in this study that modern poetry education could be one of effective ways to foster learner creativity. But this study had some limitations. The developed teaching-learning model wasn't actually utilized in class to verify its validity, and objective evaluation items that could determine the effect of poetry education on creativity improvement weren't prepared. But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sought after an applicable alternative by analyzing the creativity elements of language arts education and paved the way for the application of it to school instruction.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연구사 검토

### 가. 연구 목적

현대 사회는 지식 기반 사회 혹은 정보화 사회이다. 지식과 정보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삶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현 사회에서의 지식과 정보는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식과 정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 즉 지식과 정보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능력이며, 고등 사고 능력이다. 이는 모든 유형의 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고력인데, 창의적 사고라 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21세기 지식·정보 기반 사회를 염두에 둔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중요한 교육 목표 및 내용으로 삼고 있다. 현 국어과 교육과정은 틀에 박힌 사고보다는 열린 사고, 창의적 사고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창의성 신장을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에 대한 정의와 구성요소, 이에 따른 교수 학습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는 교과 내용과는 관련 없는 막연한 창의성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과교육의 맥락 속에서 창의성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성된 교과서는 학습자의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데에 유용한 교재로 그 활용에 있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교과서 중심으로 틀에 박혀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만 교과서를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획일적인 사고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교과서 중심이 아닌 학습자의 사고 활동에 초점을 맞춰 교과서를 하나의 교재로 활용한다면 창의성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창의성 연구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보다는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아울러 창의성 신장 방법으로는 교과 내용과는 깊은 관련이 없는 일반적 창의력 신장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비교적 단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전문성을 나타내야 하는 경우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에서의 효과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고 있다.<sup>1)</sup>

문학은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언어적 산물로,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문학작품은 사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작가의 허구적 산물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문학교육을 통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학습자가 가진 배경지식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학습자 간의 토의나 토론을 통해 새로운 의미 구성이 가능하다.

이는 현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지식교육으로,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사고가 아닌 다양하고 열린 사고를 발현시키는 데에는 문학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겠다. 문학 중에서도 시는 표현에 있어 함축성이 강하고, 말하는 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 개개인의 독창적인 사고를 유

---

1) 이주섭, 『국어과 창의성 신장 방안』, 박이정, 2004.

말하기 쉬운 장르이다.<sup>2)</sup> 시 교육에 있어서 단편적인 시어나 시구, 표현 방법을 아는 것은 시의 전체에 대한 감상에 나아가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 대한 감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습자 스스로 시의 의미를 구성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를 신장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시에서 사용하는 말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보통의 말과 다르지 않다. 물론 시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특수한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특하게 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시에서 사용하는 말이 반드시 특수한 말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보통의 언어로도 얼마든지 시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는 시에서 구사되는 말이 단순하고 평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고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sup>3)</sup>

이러한 시의 특성 때문에 시를 접하는 학습자들은 대개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한 어려움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시를 하나의 정해진 틀로 암기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다. 시에 구사된 개개의 낱말에 대한 뜻을 모두 알아도 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교사가 시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을 주입한 결과 일어난 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교수-학습 상황에 있는 학습자는 결국 시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창의성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한다는 측면과 함께 새롭게 산출된 아이디어가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재구성하며 삶의 틀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sup>4)</sup> 시는 작가의 산물이지만, 시의

---

2) 유성호는 '시' 혹은 '시적인 것'과 소통할 때, 으레 '난해성'이라든가 '함축성'이라는 근원적인 소통 장애 요인과 마주치게 된다. 그러나 그 같은 소통 장애는 시 장르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시를 향수하는 데 꼭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온당한 이해력과 경험의 축적으로 난해성을 적극 풀어낼 경우, 우리는 '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경험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시를 통해 경험하게 된다. 라고 말하였다. (유성호, 『현대시 교육론』, 역락, 2006, 23~24면 참조.)

3) 김종태 편, 『시와 소설을 읽는 문학교실』, 하늘연못, 2000, 41면.

의미는 작가의 의도만이 아닌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즉 시에 대한 올바른 감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학습에 있어 교사가 학습자에게 시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을 주입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시를 암기해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할 것이며, 동일한 해석과 감상만을 산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과교육의 맥락 속에서 문학 중 시를 통해 창의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해 볼 것이다. 우선 창의성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교과서 시 단원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 활동에 나타난 창의성 요소를 분석해 보겠다. 다음으로 창의성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을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시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 현장에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나. 연구사 검토

국어과 교육 분야에서도 최근 들어 ‘창의성’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많이 늘고 있다. 국어 교육과 관련된 창의적 사고를 규정하고 교수·학습의 원리를 제시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관련 연구로서 말하기 학습 전략 지도를 통한 창의력 계발 방안 연구, 창의적 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학교 국어 수업에 적용한 방안 연구, 사고력 신장을 위한 작문 지도의 실재를 제시한 연구, 국어지식 학습을 위한 창의성 언어 활동 프로그램 방안 연구, 문학 교육에서 창의적 사고의 수용과 지도 방안을 개발한 연구 등이 있으며,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국어과 평가 방법을 모색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어사용 현상과 국어 교

---

4) 김혜영, 「이미지의 작용 방식과 상상력 교육」, 『국어교육』, vol 105, 2001.

육 현상 속에서 창의성이 갖는 교육적 의미와 구성 요인을 어느 정도 밝혔을 뿐만 아니라, 국어과 교육을 통한 창의성 신장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5)</sup>

본 연구는 중학교 현대시 교육에서의 창의성 신장 방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므로, 우선 창의성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시를 제외한 전래동화, 고전시가, 설화, 소설 교육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 신장 연구와 시를 대상으로 한 창의성 신장 연구를 살펴보겠다.

우선 창의성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심옥화<sup>6)</sup>는 아동의 정서와 수준을 고려하여 창의성과 관련된 다양한 기법의 사고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동의 창의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 성별과 창의성 정도는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5개월간 창의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창의성과 창의성 하위 요인 증진에 효과가 있었으나, 성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한 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고경옥<sup>7)</sup>은 중등학교에서의 창의성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25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사의 성별, 직급별, 학교 크기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연구자의 자작 설문지이고, 분석도구로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을 사용하였다. 중등학교 창의성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설문 조사 대상이 특정 지역의 한정된 수였다는 점과 연구자의 자작 설문지(26문항)로는 구

5) 이주섭, 『국어과 창의성 신장 방안』, 박이정, 2004, 21면.

6) 심옥화,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7) 고경옥, 「중등학교 창의성 교육 실태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체적인 부분까지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겠다.

김윤범<sup>8)</sup>은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개발된 국어과 창의적 사고력 신장 지도 프로그램<sup>9)</sup>이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 및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그 실천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농어촌인 부안군에 소재한 초등학교 2학년 두 반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통계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매우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전 학년 국어과 교육과정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전래동화, 고전시가, 설화, 소설교육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 신장 연구들이다.

정희자<sup>10)</sup>는 창의성과 전래동화의 교육적 관련성을 살펴보고 초등학교 제 6,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수록된 전래동화 제재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분석하여 창의성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모색하고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전래동화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창의성 신장 방법 적용 단계에서 창의성 신장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에 치중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권금홍<sup>11)</sup>은 창의성과 문학 교육과의 관계, 전래 동화와 창의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전래 동화를 분석하여 창의성 신장을 위한 전래 동화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8) 김윤범, 「국어과 창의적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적용이 창의성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9) 전라북도교육청, 「국어과 창의적 사고력 신장 지도 프로그램」, 공익사, 2003.

10) 정희자, 「창의성 신장을 위한 전래동화 지도 방안 연구-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11) 권금홍, 「창의성 신장을 위한 전래 동화 지도 방안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사용한 창의적 사고 기법은 스캐퍼 기법, 토론·토의 기법, 시네틱스 기법으로 한정하였으며, 전래 동화의 제재 선정 기준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사의 확산적 발문 기술의 연구, 전래 동화 수업에서의 ICT활용 등을 연구 과제로 남기고 있다.

최성아<sup>12)</sup>는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고전 시가 교수·학습 모형<sup>13)</sup>을 개발하여, 정철이 쓴 ‘관동별곡’ 수업에 그 모형을 적용하여 봄으로써 고전 시가의 교육적 접근 방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 수업에 도입해서 검증해 보지 못했으므로, 새 모형의 실효성을 공고히 하지 못하였다.

김서영<sup>14)</sup>은 설화 문학이 학습자의 상상력을 무한히 자극할 수 있고,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창의적 사고를 발달하게 할 수 있는 적합한 학습 제재라고 보았다. 이에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설화 학습 전략<sup>15)</sup>을 투입하였고, 사전검사-실험처치-사후검사로 진행하여, 학습자들의 창의성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하였다. 한계로는 특정 도시 지역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험에 참여한 인원이 43명으로 비교적 적은 수였다는 점, 창의성의 정의적인 영역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겠다.

전윤희<sup>16)</sup>는 일차적으로 모듬 토의 활동에 관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 
- 12) 최성아,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고전 시가 교수·학습 방법 연구-정철의 ‘관동별곡’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13) 설계한 모형은 (1) 학습맥락 진단 단계→(2)계획 단계→(3)지도 단계→(4)평가 단계→(5)내면화 단계로 구성된다.
  - 14) 김서영, 「창의성 신장을 위한 설화 교육의 교수-학습 모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15) 브랜스포드(Bransford)와 스테인(Stein)의 IDEAL 모형 중 마지막 단계인 ‘효과적 검토’를 ‘해결책 공유 및 감상하기’의 단계로 바꾸었다. (문제의 확인-문제의 정의-대안적 해결 탐색-계획의 실천-해결책 공유 및 감상하기)
  - 16) 전윤희, 「창의성 신장을 위한 소설교육 방안 연구-작품의 수용과 창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읽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 고든(W. J. Gordon)의 창의적 문제해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소설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sup>17)</sup>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두 토의 수업 모형과 창작 수업 모형을 현장에 적극 활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를 대상으로 한 창의성 신장 방안 연구들이다.

윤미원<sup>18)</sup>은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시에 다가가서 쓰기 체험을 하였다. 이를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한 결과와 수행평가 내용을 설문조사에 의하여 전후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그러나 설문 조사에 의한 검증은 연구자가 묻는 질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결과를 알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강경순<sup>19)</sup>은 시 교육과 창의적 사고에 대한 탐색을 통해 시와 창의성이 상호 연관되는 접점에서 창의적 사고를 통한 시 교육 방법에 대해 모색하였다. 우선 창의적 사고를 수용한 교수 학습 모형들을 고찰하여, 시 교육과정의 창의적 사고 수용 면을 5, 6학년 동시 단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문학 영역의 창의적 문학 학습 모형을 구안, 현장에 적용하였다. 특히 실제적 적용면에서 초등학교 시 장르를 특화시킬 수 있는 시 창작 수업이 되도록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 초등학교 6학년 한 반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박은실<sup>20)</sup>은 한시 교육에서의 창의성 수용 양상에 관해 먼저 고찰한 후,

---

17) 창작을 위한 수업 모형은 고든의 창의적 문제 해결법 중에서 ‘새로운 것을 창안하기’ 전략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소설 창작 과정은 ‘현재 상황의 기술(소재 찾기 혹은 인물 설정)→직접 비유→개인적 비유→상반일치→직접 비유→최초의 학습 과제 재검토’의 순서로 하였다.

18) 윤미원, 「창의성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현대시 교육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19) 강경순, 「창의적 사고를 통한 시 교육 지도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20) 박은실, 「한시를 통한 창의성 신장 교수·학습 방법 연구 : 제7차 문학 교과서 수록 한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한시의 특성을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 이와 같은 한시의 특성이 창의적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창의성 구성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한시를 통한 창의성 신장 교수·학습 모형을 새롭게 개발해 제7차 문학 교과서 수록된 작품에 적용해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 모형을 교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상의 논의들은 창의성 교육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창의성 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문학 장르 각각을 대상으로 하여 창의성 신장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창의성 교육이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의 학교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임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우선 창의성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창의성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과 교육을 통해 창의성 신장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전래동화, 고전시가, 설화, 소설교육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 신장 연구들을 통해서도 다양한 문학 장르를 통한 창의성 신장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각각의 문학 장르의 특성에 기반 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성된 교과서의 틀 속에서 어떻게 창의성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시를 대상으로 한 창의성 신장 연구들을 통해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그 논의조차도 7차 교육과정 도입기의 중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논의, 시 장르 내에서도 한시만을 대상으로 한 논의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21세기 지식·정보 기반 사회를 염두에 둔 교

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중요한 교육 목표 및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시를 대상으로 한 창의성 신장 연구에는 교과교육의 맥락 내에서 창의성 신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 교과서는 7차 교육 과정을 토대로 구성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창의성 신장 방안을 모색하기 이전에 얼마만큼 교과서에서 창의성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현대시를 대상으로 하여 창의성 신장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창의성의 개념에 대해 정립한 후 창의성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교과교육의 맥락에서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시 단원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활동에서의 창의성 요소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창의성 개발 및 신장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았다. 창의적 사고 과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모형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하여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시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안하였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학교 현대시를 대상으로 하여 창의성 신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설정하였다.

첫째, 창의성의 개념과 구성요인을 알아보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방법들을 살펴봄으로써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는데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시 교육 방안을 마련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창의성이란 무엇인지, 다음으로 창의성을 어떻게 개

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을 반영한 결과물인 교과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궁극적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성된 것이기에 중학교 1~3학년 교과서 내 시 단원의 학습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창의성 지도 요소의 포함 여부를 분석해 보겠다. 그 결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요소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창의성 신장을 위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그 대안을 제시하겠다.

셋째, 앞서 살펴본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시 교육 방안의 일환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문학을 대상으로 한 수업 모형의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창의성 신장을 돕는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구체적으로 교수-학습 지도안에 적용해 보겠다.

넷째, 논의에 있어 시 창작 활동에 대한 것은 제외하도록 하겠다. 창작만 하더라도 수많은 이론과 교육 방안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 Ⅱ. 창의성과 시 교육

창의성과 시 교육에 관해 논하기에 앞서, 시 장르 자체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시는 운문문학의 대표 장르로 산문문학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시의 어떤 특성이 창의성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음악성은 시어가 잘 다듬어진 형태 속에서 운율과 같은 음악적 자질을 최대한 발현할 때 나타나는 자질이다. 시는 고도의 조직화 성향을 갖기 마련인데, 이것은 바로 운율적 언어에서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 또한 시의 리듬은 상징의 암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미지와 결합되어 시인이 전달하고자 한 관념을 선분리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형상성은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시인이 전달하려는 관념과 정서가 추상적 차원이 아니라 경험적·감각적 차원에서 구체화될 때 실현되는 자질이다. 이미지 분석을 통해 시의 의미를 추적할 때 시의 의미는 세 가지 측면을 지닌다. 시인이 원래 작품 속에 표현(혹은 전달)하고자 한 의도적 의미와 작품 속에 실제로 표현된 실제적 의미와 그리고 독자가 해석한 의미가 그것이다. 이 세 측면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sup>21)</sup>

함축성은 비유, 상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일상적·과학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서적 효과를 불러일으켜 정신적 가치를 드러낼 때 드러나는 자질이다. 비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으로 상상력의 산물이며, 상징은 감춤과 드러냄의 양면성을 필연적으로 지닌 것으로 암시성과 다의성을 수

21)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9, 161면.

반한다.

시의 이러한 특성은 창의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적합하다. 시의 리듬은 암시성을 가지고 있으며, 심상은 언어에 의해 재현되는 것으로 다양한 감각으로 형상화될 수 있다. 그리고 시의 의미는 일상어나 과학적 언어처럼 1:1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문학작품의 하위 장르인 시라는 말하기는 명료성보다 독창성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화자나 시인의 의도가 청자나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시는 애매성을 가질 수 있고, 상징적이 될 수 있으며,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sup>22)</sup> 시에 사용되는 단어나 문장의 용법은 단일성이나 명확성보다 다양성 혹은 애매성을 바탕으로, 의미의 전달은 과학적 사유를 거치는 것보다 정서적 환기를 통하여 시인이 표현한 것을 깨닫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sup>23)</sup>

이러한 시의 특성은 창의적 사고와 연관되며, 교수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 발현의 양과 질은 달라질 수 있다.

## 1. 창의성 개념과 구성 요소

### 가. 창의성의 개념

‘창의성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창의성의 정의 및 개념은 창의성 연구에

---

22) 양왕용, 『현대시교육론』, 삼지원, 1997, 61면.

23) 양왕용, 위의 책, 109면.

있어서 시작이며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sup>24)</sup>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데 Maslow는 창의성을 ‘특별한 재능의 창의성’과 ‘자기실현의 창의성’으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천재, 발명가, 과학자, 예술가와 같은 특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그들의 창의적인 활동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갖느냐의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후자인 자기실현의 창의성은 일반 사람들 누구든지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사회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 자신에게는 새롭고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의 공교육에서는 Maslow가 말하는 특별한 재능의 창의성도, 자기실현의 창의성도 모두 중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실현의 창의성인 것 같다.

19세기 이전에는 창의성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측정하기 어려운 능력이라고 생각하였다. 20세기 초반 이후 심리 역동적 접근, 게슈탈트 학파, 행동주의 학파와 Wallas 등이 창의적 사고를 연구하기는 했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창의성 개념을 정립하지는 못하였다.

심리 역동적 접근에서는 창의성이 의식적인 현실과 무의식적 욕구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나타난다고 본다. Freud는 작가와 예술가의 창의적 산물은 그들의 무의식적 소망인 권력, 부, 명성, 사랑의 대중적 표현이라고 하였다. Kris는 창의성 연구에 적응적 퇴행과 정교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심리 역동적 접근은 창의성에 대한 통찰은 제공하였지만 과학적인

24) 이하 본고의 진술은 다음 문헌들을 참고로 한 것임.

강현석·김창호·이재순,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과 교육 과정설계 원리와 방향」, 『중등교육연구』, vol 51, 2003, 5~6면.

박영태, 『창의성의 별』, 학지사, 2002.

윤길근,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방법』, 문음사, 2004, 53~54면.

이주섭, 『국어과 창의성 신장 방안』, 박이정, 2004, 24면.

하주현, 『창의력』, 시그마프레스, 2006.

한순미, 『창의성』, 학지사, 2005, 14~21면.

심리학은 아니었다. 창의적인 사람의 사례연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고, 그들이 제안한 적응적 퇴행 과정이나 정교성 과정을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 게슈탈트 학파는 생산적 사고라고 표현한 창의적 사고를 연구했다. 그 연구에서는 ‘문제의 재구성’을 창의적 문제해결의 핵심요소로 중요시하였다. 재구성 과정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게슈탈트 학파는 문제를 해석하던 뇌의 활성화 부위가 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왜 자발적인 전이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Wallas의 창의적인 사고과정에 관한 연구는 행동주의 입장에 비해 창의적 사고과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즉 창의적인 산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분석해 보는 준비단계를 거쳐, 문제에서 벗어나 휴식이나 다른 활동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는 부화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Wallas의 단계이론은 지금도 창의적 과정에 관한 여러 책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과학적인 분석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연상주의자들은 내성법을 토대로 창의적 사고의 매커니즘을 연구하려 하였다. 이러한 조류의 대표적인 학자인 Mednick은 창의적 생각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우연적인 연상, 유사한 자극과의 연상, 각각 다른 단어들이 제3의 단어와 결합하게 되는 매개의 방법이 그것이다. 또한 Mednick은 ‘원격연합검사’를 제작하여 창의성을 측정하려 하였다.

1950년대에 들어서서 창의적 사고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과학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특히 Guilford는 이 물결의 선두주자로 창의성의 요인과 측정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하였다. 그는 창의성은 소수의 사람만이 가진 선천적인 능력이라는 당시의 창의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창의성이란 개인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하였다. 그리고 ‘지능 구조의 모델’을 소개하면서 지능 구조의 한 부분인 확산적 사고를 창의성의 기본 사고유형으로 보았다.

Torrance는 Guilford의 창의성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켰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 검사를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는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재미있고, 구체적인 문항들로 구성된 검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마침내 언어검사와 도형검사로 구성된 ‘Torrance 창의적 사고 검사(TTCT)’를 개발하였다. 그 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입증하였다.

창의성 연구의 통합적 접근은 창의성의 인지적 측면, 성격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등 다차원적 접근이 창의성 연구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송인섭과 김혜숙은 창의성을 ‘새롭고 가치 있는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서, 개인의 정의적 성향과 인지적 능력, 환경 및 과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Urban은 창의적 요소 모델을 발표하면서 창의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즉 창의성에는 확산적 사고와 행동, 일반적 지식과 사고기반, 특정 영역에서의 지식 기반적 사고와 작업 기능, 초점 맞추기와 과제에 대한 집착력, 동기와 동기화, 개방성과 애매모호함에 대한 참을성, 환경의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창의성의 통합적 접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의성이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다원적, 통합적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어원적으로 보면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 창의성은 또한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대체적으로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고력’으로서 여기에는 사고의 독창성, 유연성, 유창성, 정교성 변인 등이 포함되며, 다른 하나는 사고의 태도와 인성 변인으로 보는 것으로서 예컨대 민감성, 개방성, 탐구성, 독립심

등의 변인이다. 그러나 이런 심리학적 관점은 창의성이 한 개인의 내면적 심리 특성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협소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창의성의 변인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한 사회가 좌우한다고 본다. 한 시대나 사회 문화적 욕구가 창의성을 결정지으며 한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가 좌우하지 않으며 사회대중의 광범한 욕구가 결정한다. 즉 한 개인의 사고력이나 인성보다는 그의 사회적 환경이 그의 창의성을 촉진 또는 구속시킨다.

철학적 관점, 예컨대 실존철학적 관점에서는 한 인간의 실존적 특성이 창의성의 본질적 원천이며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독특한 사람됨이 결정한다. 인간이 본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그러한 독특한 근본이 그의 창의성을 드러내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다. 다른 차원에서 보면 창의성이라는 것을 요소론적(환원론적 입장)으로 볼 것인지, 전체론적(통합론적 입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1950년대 말부터 창의성에 대한 개념정의가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하나의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제시한 이영만에 의하면, 창의성은 첫째, 새로움 혹은 독창성을 의미한다. 둘째, 적절성과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정신적 과정이다. 결국, 창의성은 ‘교과 내용과 관련하여 적절성과 유용성을 갖춘 동시에 새롭거나 독창적인 산물을 만들어 가는 정신 과정’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성은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상위 인지, 의사 결정 사고 등 비교적 고등한 수준의 지적 작용이 개입되는 복잡한 인지적, 정의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나. 창의성의 구성 요소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의 구성 요인으로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에 문학적 ‘상상력’을 더하여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sup>25)</sup>

· 유창성

유창성이란 ‘사고의 속도’를 가리키는 말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는 흔히 사고의 상황에서 단 하나의 옳고 훌륭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머리를 짜내며 고민한다. 그러나 사고의 과정에서 산출된 초기의 아이디어가 최선의 아이디어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므로 사고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질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창성은 창의적 사고의 과정에서 비교적 초기 단계에 요구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유창성을 기르는 활동으로는 특정한 사물과 관련된 것을 자유롭게 떠올리기와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안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제시해 보기 등이 있다.

· 융통성

융통성이란 ‘사고의 넓이’를 가리키는 말로, 한 가지 문제 사태에 대하여 고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시각 자체를 변환시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한다. 고정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발상 자체를 전환시켜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사고하는 것은 독창적인 사고의 필수 요소가 된다. 특히 정답이 정해져있지 않는 실생활의 복잡한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더욱 필요한 것인 사고의 융통성이라 할 수 있다. 주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

---

25) 이주섭, 『국어과 창의성 신장 방안』, 박이정, 2004, 30~33면.

하는 방법으로서 한 가지 방법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접근에 의한 해결을 보는 것은 그만큼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융통성을 기르는 활동으로는 결과로부터 거꾸로 생각하기, 사물의 속성을 기초로 의도적으로 다양한 생각하기 등이 있다.

- 독창성

독창성이란 ‘사고의 새로움’을 가리키는 말로,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사고는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강구하려는 노력에서 가능하다. 독창성을 기르는 활동으로는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하기와 기존의 생각이나 사물의 가치를 부정하고 생각하기 등의 활동이 있다.

- 정교성

정교성이란 ‘사고의 종합력’을 말하는 것으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기존의 아이디어 또는 산출된 아이디어를 보다 치밀하게 다듬어 발전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창의적 사고의 최종 단계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측면에서 산출된 많은 아이디어를 재료로 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이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활동이 필요하다. 정교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떠오르는 생각을 보다 구체화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 상상력

상상력이란 ‘사고의 확장’을 말하는 것으로, 경험 세계의 범위를 벗어나 자기만의 생각을 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상상력은 구체물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다. 창의적 상상력의 발달은 경험의 세계에서만 논의하게

되면 상상력을 발달시키기 어렵다. 국어교과 학습을 통한 언어적 경험이 사고를 유발하게 되므로, 그 언어 세계가 구축하고 있는 상상의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경험적인 자기 세계와 고정적인 사고의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창의적 사고이며,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상상력을 이해하고 풀어내는 고차원의 능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상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은 창의적 사고의 구성 요인이 된다. 상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생성 과정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 2. 시 교육에서의 창의성

시 교육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초·중·고등학교 교육만큼 그 영향력이 절대적인 곳은 없다. 실제로 학교 교육에서 시 교육은 제도 교육이라는 강제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교육의 보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 된다. 즉 학교 교육에서 시는 말하기/듣기, 읽기/쓰기와 같은 활동의 자료이면서, 국어 활동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 또한 시는 언어 예술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 시기의 시 학습은 언어와 예술에 대한 우리 일상인의 태도와 이해의 기본 틀을 제공하여 준다.<sup>26)</sup>

제7차 교육과정은 국어교육의 실천과 관련되는 내·외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수준별 학습을 통해 개별 학습자가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개정된<sup>27)</sup> 교육과정으로 국어과의 교육 목

26) 김은전 외, 『현대시 교육의 쟁점과 전망』, 월인, 2001.

27) 정구향,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안 및 교수 학습 자료」, 한국교육

표<sup>28)</sup>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요컨대,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지칭되는 제7차 교육과정은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이며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두 가지 특징은 학습자 중심과 창의적 사고의 신장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보편적 수준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학습자 개별적 수준에 맞게 도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성보다는 개별성, 규범성보다는 비규범성,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의 신장’이라는 덕목으로 귀결된다.<sup>29)</sup>

시 교육은 문학교육의 방법과 관점, 그 지향의 연장선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과목의 목표<sup>30)</sup>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

과정평가원 세미나 자료집, 1998.

28)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20면.

29) 김중신, 「창의적 사고력과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4, 1999.

30)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303면.

있다.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

(가) 문학 활동의 기본 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나)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

(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라)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문학이 고정된 작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주체(학습자)의 활동 속에서 비로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학교육의 핵심은 작품과 수용과 창작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이해와 감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반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용과 창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전자가 다분히 학습자를 수동적인 위치에 한정시키고, 작품에 대한 인지적 접근과 정의적 접근을 구분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수용’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수용 주체의 능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sup>31)</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학의 수용과 창작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는 이미 지적했듯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로의 활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수동적 입장에 있던 독자를 적극적인 구성자로 재개념화한 것

31) 전윤희, 「창의성 신장을 위한 소설교육 방안 연구-작품의 수용과 창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49면.

이다.<sup>32)</sup>

학습자가 문학 주체로서 문학을 향유하고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문학의 본질에 대한 지식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사물과 세계에 대한 창의적 감각, 이를 통한 문학적 가치의 발견 등이 필요하다.<sup>33)</sup>

시 교육의 목표 역시 문학 교육 일반 목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다른 문학 갈래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시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sup>34)</sup> 시는 의미와 상황이 자세하게 제시되는 갈래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가 의미를 재구성하는 활동이 중요하다.<sup>35)</sup>

과거 우리의 시 교육은 교사들의 일방적인 소통 체계에 의해 이루어졌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소통이란 없었다. 교사는 시 텍스트의 절대적인 해석자였고, 어느 학생도 그 해석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은 입시 제도와 맞물려 짧은 시일 안에 주입식으로 교육되어 학생들 각자의 머리 속에 각인되었다. 그 결과 시인의 무한한 상상력의 소산인 시에 대한 해석이 공식화되다시피 했다.<sup>36)</sup>

그러나 최근 문학 교육의 방향은 학습자의 사고력과 창의성 증진을 목표로 하여, 문학 현상에 대한 단순 이해보다는 텍스트를 학습자 자신의 경험과 매개하고 그 결과를 학습자 스스로의 언어로 환원해보는 쪽<sup>37)</sup>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 교육도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 구성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32)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33) 유성호, 『현대시 교육론』, 역락, 2006, 41면.

34) 김은진, 『현대시 교육의 쟁점과 전망』, 월인, 2001, 26면.

35) 김은진, 위의 책, 38면.

36) 김은진, 위의 책, 194면.

37) 유성호, 『현대시 교육론』, 역락, 2006, 39면.

Guilford는 창의성을 새로운 것을 낳는 힘이라고 정의하였고, Osborn은 창의성을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보편적 능력이며 특성으로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제반 사태나 문젯거리를 개인 나름의 새롭고 특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 정의하였다.<sup>38)</sup> 이들은 창의성을 개인의 능력으로 보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

시의 언어는 비유와 상징, 함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능동적인 의미 수용 활동이 중요하다. 시를 교수-학습한다는 것은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고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사고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고력인 창의적 사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 3. 교과서 학습활동에 나타난 창의성 요소 분석

국어과에서 언어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그것이다. 그리고 활동 양상으로 나눈다면 듣기와 읽기는 이해(수용)영역이고, 말하기와 쓰기 영역은 표현 영역이다. 즉 듣기와 읽기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증진하는 것과 말하기와 쓰기의 경우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밖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창의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의미 구성과 확장에 보다 밀접하게 작용하는 전략으로 상위 범주 7가지-사전지식 활용하기, 조직하기, 바꾸어 생각하기, 확장하기, 비평하기, 반응하기, 점검하기-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sup>39)</sup>, 이를 토

38) 박영태, 『창의성의 별』, 학지사, 2002, 69면.

39) 이주섭, 『국어과 창의성 신장 방안』, 박이정, 2004, 39~69면.

대로 중학교 1~3학년 교과서 시 단원<sup>40)</sup> 학습활동에 나타난 창의성 요소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상위 범주 7가지-사전지식 활용하기, 조직하기, 바꾸어 생각하기, 확장하기, 비평하기, 반응하기, 점검하기-는 앞서 살펴본 창의성 구성 요소와의 관련성이 있으며, 포함된 창의성 구성 요소 신장에 도움이 된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1]과 같다.

국어과 창의성 지도 내용 요소	창의성 구성 요소
사전지식 활용하기	융통성, 상상력
조직하기	정교성
바꾸어 생각하기	융통성, 유창성, 독창성
확장하기	정교성, 독창성
비평하기	융통성, 정교성
반응하기	상상력, 융통성
점검하기	창의적으로 읽기 지속

[표1] 국어과 창의성 지도 내용 요소와 창의성 구성 요소의 관련성

#### (1) 사전지식 활용하기

사전지식 활용하기는 창의성 요소 중 융통성과 상상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sup>41)</sup> 남의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때,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다양한 예측을 하면서 상상력을 기를 수 있고 남에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40) 중학교 1~3학년 교과서에 실린 시 중 소단원의 시 23편 중 고려가요(가시리-9학년 2학기)와 고시조(시조 두 편-9학년 2학기), 현대시조(독방길-9학년 1학기)를 제외한 현대시 19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41) 하위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새 정보와 사전지식 통합하기, 예측하기, 자유 연상하기, 생각그물 만들기, 이야기 나누기가 있다.

<7학년 2학기>			
대단원	4. 시의 세계	소단원	(4) 우리가 눈발이라면
목표학습 42)	‘우리가 눈발이라면’을 감상하고, <u>현실 상황과 관련지어</u>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은 우리 주변에서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자. 2. ‘잠 못 든 이’는 어떤 사람인지 그의 심정을 헤아려 보자.		

위의 목표학습은 사전 지식 활용하기 중 ‘새 정보와 사전지식 통합하기’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 동일한 책을 읽었어도 학습자들의 회상 내용은 서로 다르다. 이는 학습자들 모두가 글 내용과 상호 작용하고 사전 지식 정교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 서로 다른 자신의 경험 세계와 통합하며 읽고 있기 때문이다.

위 목표학습에서는 ‘현실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라고 하였다. 이는 각각의 학습자들이 가진 배경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지역, 문화 수준을 가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유사한 내용의 답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 (2) 조직하기

조직하기는 창의성 요소 중 정교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sup>43)</sup> 학습자들은 글을 읽으면서 일련의 생각들과 사건의 진행 순서를 조직한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조직하는 방법은 자신이 읽고 쓰는 글의 장르가 이야기인지, 정보적인 글인지, 시인지에 따라 다양하다.

42)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1-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142면.

43) 하위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기, 의미지도 그리기, 여러 방식으로 열개 짜기, 도해 조직자 활용하기, 구조 표지어 활용하기가 있다.

<7학년 2학기>			
대단원	4. 시의 세계	소단원	(2)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내용 학습 44)	<p>‘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을 감상하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p> <p>1. 시의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 안에 들어갈 말을 시에서 찾아 넣어 보자. 또, 이를 뒷받침하는 말을 찾아 ○ 안에 적어 보자.</p>		

위의 내용학습은 조직하기 중 ‘도해 조직자 활용하기’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 도해 조직자는 글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 도구로서 특히 글의 구조를 잘 반영하며 아이디어의 위계적 조직을 보여준다. 또한 도해 조직자는 개념간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독해를 향상시킨다. 학습자는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시의 의미 파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습자 스스로가 만든 구조적 도식 내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다.

### (3) 바꾸어 생각하기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창의적 사고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sup>45)</sup> 이는 창의적 속성 중에서 융통성이나 유창성, 독창성과 관련이 깊

44)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1-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134면.

다. 이를 위해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보는 활동이나 결말 달리 맺기,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보기 등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9학년 2학기>			
대단원	1. 창조적인 문학체험	소단원	(1) 즐거운 편지
목표학습 46)	1. 이 시를 쓰게 된 사연을 상상해 보고, <u>그 사연을 방송국에 보내는 글처럼</u> 써 보자.		

위의 목표학습은 바꾸어 생각하기 중 ‘다른 형식으로 바꾸기’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융통성이 길러지며, 새로운 형태로 꾸며봄으로써 독창성을 증진할 수 있다. 학습자가 시를 산문의 형태로 바꾸어본다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며, 이런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 (4) 보완 확장하기

창의력이라는 말은 ‘새롭다’라는 의미를 함의한다.<sup>45)</sup> 하지만 새로운 것은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변형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기존의 것을 보완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길러진다. 이들 활동은 특히 창의력 중에서 정교성과 독창성 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7학년 2학기>			
대단원	2. 문학의 아름다움	소단원	(1) 바다가 보이는 교실
내용학습 47)	2. 이 시에 나오는 ‘열이’는 어떤 아이일지, 이 시의 화자는 누구일지 생각해 보자.		

45) 하위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으로는 다른 각도에서 보기, 이어질 내용 말하기, 구성 요소 바꾸기, 다른 형식으로 바꾸기,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 보기, 가정하기가 있다.

46)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3-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13면.

위의 내용학습은 보완 확장하기 중 ‘상상하기’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 상상은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또 다른 사실이나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말한다. 이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생각과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시를 읽은 후, 시에 나오는 ‘열이’가 어떤 아이일지, 시의 화자는 누구일지 상상하는 활동은 창의적인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 (5) 비평하기

비판하기는 결점을 찾아내는 활동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활동이다.<sup>49)</sup>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내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며, 융통성과 정교성 등이 길러진다.

#### (6) 반응하기

이야기, 소설, 시와 연극에서의 정서적인 반응은 창의적인 이해와 표현의 필수적인 부분이다.<sup>50)</sup> 이야기의 상황과 장면을 경험하고 향유하고, 정서를 환기시키고 긴장과 갈등에 기꺼이 참여함으로써 상상력과 융통성이 증진된다.

47)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1-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46면.

48) 하위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추론하기, 상상하기, 명료화하기, 의문 갖기, 유추하기가 있다.

49) 하위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선입견이나 편견 파악하기, 기법 평가하기, 논리의 오류 찾기, 주관적인 감정이 담긴 언어 구별하기, 평가 기준을 정하고 평가하기, 비판하기가 있다.

50) 하위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줄거리 또는 주제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반응하기, 등장 인물과 동일시하기, 심상 형성하기가 있다.

<7학년 2학기>			
대단원	4. 시의 세계	소단원	(3) 어떤 마을
적용학습 51)	다음 사진을 보고, 심상이 잘 드러나는 표현을 만들어 보자.		

위의 적용학습은 반응하기 중 ‘심상 형성하기’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 생생한 심상을 형성하는 활동으로는 정교한 묘사하기, 읽는 동안 마음에 떠오르는 소리와 냄새 묘사하기,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 그리기 등이 사용된다. 위와 같은 활동은 정교한 묘사하기에 해당한다. 위 활동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가 만든 표현을 교환해 읽어 보는 활동도 창의적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7) 점검하기

점검하기는 창의적으로 읽기를 지속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sup>52)</sup> 점검하기는 “내가 지금 적합하게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역동적으로 의미 구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중점이 있다.

교과서 시 단원의 학습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창의성 요소를 분석한 결과 76문항 중 19문항만이 창의성 요소가 포함된 활동이었다.<sup>53)</sup> 그 외 학습활동 문항은 소재 찾기나 중심어 찾기, 내용 정리하기, 시의 표현상 특징 찾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창의성 신장에 도움이 되는 확산적 사고를 유발하는 활동이 학습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을 의미한다.

51)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1-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139면.

52) 하위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기, 자기 질문하기가 있다.

53) 위에 제시한 문항은 각각의 항목에 따라 하나의 예만을 제시하였다. 19문항은 상위 범주 7가지-사전지식 활용하기(3문항), 조직하기(3문항), 바꾸어 생각하기(1문항), 확장하기(9문항), 비평하기, 반응하기(3문항), 점검하기-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21세기 지식·정보 기반 사회를 염두에 둔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중요한 교육 목표 및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내 학습활동은 극히 일부분에서만 창의적 사고 활동을 다루고 있었다. 이는 교과서 시 단원의 학습활동에서 명확하게 창의적 사고 활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을 뜻한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는 교수-학습에서의 교수자인 교사의 몫이다. 교과서 학습활동을 학습자에게 제시하되, 이를 창의성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교사는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사의 발문을 통해 가능하다. 다음으로 학습활동의 문항을 자유자재로 재구성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요구된다. 단순한 정보 회상적 질문으로 구성된 문항일지라도 이를 어떻게 학습자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다른 활동이 될 수 있다.

우선 창의적 사고를 길러주기 위한 질문 방법으로는 첫째, 일제식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뻔한 대답이 나오는 질문을 바람직하지 않고,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둘째, 교사가 질문하고 교사가 대답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정답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스스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한다. 넷째, 교사가 일방적으로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사나 동료에게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학생들의 잘못된 반응이 나왔을 때 일단 인정해주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유도한다. ‘틀렸다, 맞았다’의 평가를 최대한 하지 않는다.<sup>54)</sup>

다음으로 학습활동 문항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겠다. 하나의 예로 8학년 2학기 ‘3. 문학의 표현의 소단원 (1)지각’의 학습활동 중 목표학습 4번 문항

54) 이주섭, 『국어과 창의성 신장 방안』, 박이정, 2004, 106면.

을 들어 보겠다.

<8학년 2학기>			
대단원	3. 문학의 표현	소단원	(1) 지각
목표학습 55)	4. 다음은 한 비평가가 시 ‘지각(知覺)’을 해설한 것이다. 내가 감상한 것과 비교해 보고,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 보자.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자.		

위의 목표학습은 한 비평가의 시 해설을 제시해 놓고, 제시 글과 학습자의 감상 내용을 비교/대조해 보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교사가 학습자에게 제시할 때, 도해조직자를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글의 조직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글 독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목표학습 4 학습지>		
	비평가	나
1연		
2연		
3연		
4연		
5연		
6연		

교사가 위와 같은 형식을 제시하여 학습활동이 수행된다면 학습자 스스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활동의 재구성은 각각의 학습활동에 적절한 창의적 요소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55)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2-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109면.

### Ⅲ. 창의성 개발 및 신장 방안

#### 1. 창의적 문제해결

창의성을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매우 중시한다. 창의적인 사고란 각자가 처한 문제 상황의 저해 요인과 분실 요인을 감지하여 그러한 요인을 숙고하거나 또는 가설을 세워 검증하고 수정하고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므로 이것은 문제 해결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sup>56)</sup>

창의적 문제해결(Creative Program Solving ; CPS)이란 문제 이해, 아이디어 산출, 행동 계획 및 실행의 3단계를 거치면서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가 작용하여 지식기반, 동기, 상위 인지적 통제를 기반으로 창의적/생산적 사고가 일어나는 문제해결의 과정이다.<sup>57)</sup>

Osborn의 창의적 문제해결모델(CPS)은 여러 이론가들에 의하여 20년 이상에 걸쳐 개발된 것으로, 다른 창의성 모형들과 달리 창의적 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의적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에 역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창의성 교육재단(Creative Education Foundation)의 창시자인 Osborn은 그의 저서 ‘상상력의 적용’에서 CPS의 7가지 단계를 맨 처음으로 기술하고 있다(오리엔테이션-준비-분석-가설-부화-종합-확인). 그러나 그는 196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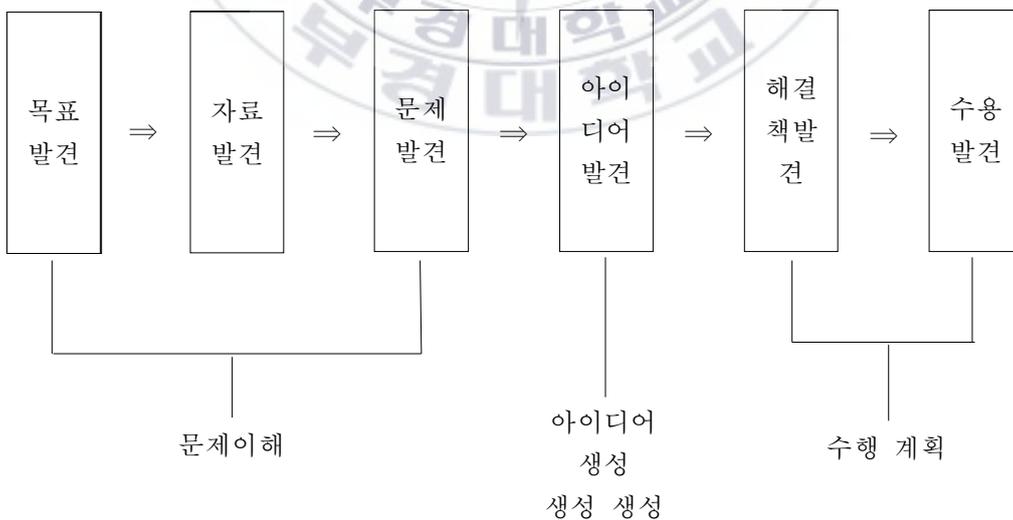
56) 윤길근,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방법』, 문음사, 2004, 192면.

57) ‘창의적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은 다음 문헌들을 참고로 하여 기술한 것임.  
김영채, 『창의적 문제 해결』, 교육과학사, 1999.  
박병기, 『창의성 교육의 기반』, 교육과학사, 1998, 114~116면.  
하주현, 『창의력』, 시그마프레스, 2006.

도의 개정판에서는 좀더 포괄적인 세 개의 단계로 CPS를 단순화시키고 있다. 이들 세 개의 단계는 ‘사실 발견’, ‘아이디어 발견’, ‘해결 발견’ 등이다. 이후 이 과정은 Parnes에 의해 더 세련화되었으며, Isaksen과 Treffinger에 의해 다듬어졌다. 가장 최근판은 전체 6단계로 이루어졌는데, 목표 발견, 사실 발견, 문제 발견, 아이디어 발견, 해결책 발견, 수용 발견 등이다.

현재 CPS는 몇 가지 상이한 수준에서 기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면 CPS는 세 가지의 활동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요소’라 함은 문제 해결을 창의적으로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관여하는 활동의 범주 또는 일반적 영역이라 말할 수 있다. 세 가지 요소는 ‘문제의 이해’, ‘아이디어 생성’과 ‘행위를 위한 계획’ 등이다.

그리고 이들보다 더 구체적인 수준으로 CPS의 각 단계에는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두 가지 국면이 있어 이들 간의 역동적 균형을 강조한다. 첫째 국면인 발산적 사고에서는 많은, 다양한, 그리고 독특한 대안들을 생성해 내는 것이 강조된다. 두 번째 국면은 생성해 낸 대안들을 분석하고 개발하고 다듬는 수렴적 사고이다.



[표2] Osborn의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

(1) ‘문제 이해’의 요소

이 활동 요소는 문제 해결 노력이 분명한 초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흔히 ‘문제가 반은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문제를 바르게 정의하는 것은 생산적인 대답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이다. ‘문제의 이해’란 요소에는 ‘목표 발견’, ‘자료 발견’ 및 ‘문제 발견’의 세 가지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① 목표 발견 단계 : 이 단계는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도전, 기회 또는 관심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란 질문을 다룬다. 이 단계의 기본 목적은 좀더 포괄적인 목표 또는 출발지점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데 있다.

② 자료 발견 단계 : 이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를 바르게 진술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 자료를 수집한 다음은 문제를 더 잘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

③ 문제 발견 단계 : 이 단계에서는 작업 가능하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으로 문제를 진술한다. 잘 정의된 문제 진술은 문제 해결의 통로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생산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유도해 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2) ‘아이디어 생성’ 요소

이 요소에는 ④‘아이디어 발견’ 이라는 한 개의 단계만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 해결에 도움 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 다양한(융통성 있는) 갖가지 아이디어, 독특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을 생성해 낸다. 그런 다음 이들 가운데서 특히 그럴듯하고 유망해 보이는 한 개 또는 몇 개의 아이디어를 선택한다.

(3) '수행 계획' 요소

이 요소의 목적은 재미있고 유망해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유용하고, 수용 가능하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행위로 번역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유망한 아이디어를 다듬고 발전시키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애써서 선택한 '해결'을 실천하기 위한 '수행 계획'을 마련코자 한다. 이 행위를 위한 계획 요소에는 '해결책 발견'과 '수용 발견'의 두 가지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⑤ 해결책 발견 단계 : 한 개 또는 몇 개의 유망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개발하고, 다듬는다. 어떤 때에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분류하고, 좁히고, 선택하는데 강조점을 둔다. 또 다른 경우에는 준거를 생성하여 그것을 아이디어에 적용하는데 강조점을 둘 수도 있다. 어쨌든 이 단계에서는 유망한 아이디어들을 체계적으로 음미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가진다.

⑥ 수용 발견 단계 : 이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선택한 아이디어를 현실에 다 실현시키기 위한 행위계획을 만들고자 한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계획을 수립한다.

창의적 문제해결(CPS)은 삶의 제반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 그것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적 해결책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창의적 문제해결은 조직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고를 통합함으로써 우리 사고 기능에 있어서 균형 잡힌 발전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이밖에 창의적 문제해결(CPS)은 집단과 개인 모두에게 감춰진 가능성으로서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게 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 아울러 문제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며, 일상의 단조로움과 습관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장애물로서만 인식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문제란 인간이 맞는 기회 또는 도전들로서 인간 삶의 적극적인 변화와 건설적인 실천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자리 매김 될 필요가 있다.

문제란 새로운 가능성과 성공의 기회를 열어 주는 것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의적 문제해결(CPS)은 문제가 지닌 가치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돕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2. 창의성 신장 기법

창의성 신장 기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 시네틱스, PMI법, 연상법, 이야기 잇기를 살펴보았다.<sup>58)</sup>

### (1)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모든 창의적 사고발상 전략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고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Osborn의 판단 지연의 원칙에서부터 도출된 것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낼 때까지 어떤 아이디어든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브레인스토밍이란 두뇌폭풍 훈련이라는 집단 발상 방법으로, 어떤 특정한 문제나 토픽 혹은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는 상상력, 융통성, 토론기술 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홀

58) 김춘일, 『창의성 교육, 그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99, 79~92면.

윤길근,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방법』, 문음사, 2004, 232~265면.

통한 기술이다. 또한 거의 모든 주제 범위와 상황에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참여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의 비결은 판단을 지연하는 데 있다. 이는 비판이나 비난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기법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기술로,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양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산출되는 아이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용하고 쓸모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제시된 생각들은 처음에는 보편적인 생각들이 떠오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덜 일반적이고 특이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브레인스토밍에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규칙이 있다. 첫째, 비판을 금지한다는 규칙이다. 참여자가 아이디어를 산출하면 그것의 좋고 나쁨을 비판하지 않는다. 나중에 산출된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까지 그의 아이디어를 절대로 평가하지도 비판하지도 간섭하지도 않는다. 둘째, 자유로움을 존중한다는 규칙이다. 자유로울수록 좋다는 것이며 되도록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셋째, 양적인 산출을 존중한다는 규칙이다. 되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도록 장려하며 아이디어의 질에 관계없이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아이디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운데에 질이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 넷째, 결합하여 개선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규칙이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기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조합하여서 더 나은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다. 창조는 이미 알고 있는 상이한 요소들을 새롭게 조합하는 데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에 따르는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짜내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중시한다. 따라서 브레인스토밍에서는 머리 회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억제하는 조건을 제거하려고 하며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산출할 뿐

아니라 참가자들의 인간관계를 좋게 하여 자발성과 창의성은 물론이고 협동심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2) 시네틱스

시네틱스(synetics)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서로 달라서 언뜻 보기에 관련이 없는 요소를 결합 한다’는 뜻이다. 즉 서로 다른 요소를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으로 이렇게 볼 때 시네틱스는 지극히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다.

시네틱스는 Gordon이 개발하였는데 창조 과정의 심리적인 과정을 기술하고 거기에서부터 구체적인 생각을 얻어 내어 그 심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시네틱스의 바탕에는 첫째로 창의적인 활동의 효율성은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현저하게 증가하며, 둘째로 창의적인 과정에서는 지적인 요소보다도 감정적인 요소가, 합리적인 요소보다 비합리적인 요소가 중요하며, 셋째로 문제 해결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를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시네틱스에서 말하는 창조의 심리적인 과정은 다섯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이탈→투입→우회→고찰→대상의 자율화이다. 이 가운데에서 이탈의 과정은 문제에서 조금 떨어져서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며, 투입의 과정은 대상 그 자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만일 자기 자신이 그것이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를 생각하는 것이며, 우회의 과정은 처음 방법으로 잘 되지 않아서 한 번 더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이며, 고찰의 과정은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자유롭게 생각해 보는 것이며, 대상의 자율화의 과정은 자기 자신이 대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아이디어가 대상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익숙한 것에서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Gordon은 세 가지의 유추, 즉 직접적인 유추, 상징적인 유추, 인격적인 유추를 인정하고 있다. 직접적인 유추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적인 법칙을 적용해 봄으로써 그것과 닮은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매우 유사한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상징적인 유추는 사물과 같은 비인격적인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다. 이것은 시적인 발상에 도움이 된다. 인격적인 유추는 자기 자신이 그것이 되어서 그 속에서 사물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다.

### (3) PMI법

PMI(Plus, Minus, Interesting Point)법은 de Bono가 개발한 「인지사고 프로그램 (CoRT Thinking Program)」 속의 사고기법이다. 이것은 어떤 아이디어나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다루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문제가 문제인지는 알지만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 때 사용하는데, 문제를 정의한 후와 몇 개의 가능한 해결안들이 제안되었을 때 많이 사용한다. 그것은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재미있는 측면들을 모두 고려해 본 다음에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PMI법은 어떤 문제 장면에 대한 시야를 넓혀준다. 그렇지 아니하면 충동적 아이디어나 정서적 반응으로 그것을 보는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

PMI 방법에서는 특별한 순서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흥미로운 점과 좋은 점을 다 작성하거나 검토해 볼 때까지 나쁜 점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을 기록하는 것은 좋은 점이나 나쁜 점만 기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생각을 하도록 격려하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흥미로운 점 란에 기록되었던 아이디어가 성장하고 변화하

고 성숙하고 다른 칸으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다.

PMI 방법은 일종의 수평적인 사고 방법이다. 수평적 사고는 공식화된 기술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이다. 이런 수평적인 사고기술의 근거는 인간 두뇌의 움직임에 있는데 두뇌의 신경회로망은 자기 구성 능력에 따라 움직인다.

#### (4) 연상법

연상법에는 자유연상법과 통제연상법이 있다. 자유연상의 방법은 어떤 단서, 대상, 주제, 방법, 상황을 제시하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포착하여 제시하는 방법이다. 조금 더 발전하면 ‘만일~이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언어적 제시만이 아니고 형태, 소리, 몸 동작 등을 제시하고 연상되는 것을 제시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비해 통제 연상법은 자유연상에 어느 정도 조건을 주어서 제한하거나 통제된 연상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어떤 ‘단서’에 이어질 다음의 발상들이 앞의 단서와 계속성, 유사성, 상대성, 인과성 등이 있는 것들로 한정해서 발상하게 하는 것이다.

#### (5) 이야기 잇기

이야기 잇기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생각을 함께 연결시키는 연쇄 연상게임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이어서 자신의 생각을 연결지어 새로이 덧붙이는 과정을 통하여 조합과 창조의 과정을 동시에 경험한다. 슬픈 이야기가 코믹 이야기로 변화하기도 하고, 공상과학 이야기가 즐거운 일상의 사건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주어진 과제를 첨가, 확대하여 일련의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융통성 및 독창성 기르기 훈련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 잇기 방법들이 있다.

① 이야기 잇기 - 말로 하기

- 4~8명의 사람들이 원을 만들어 앉는다.
-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야기를 이어서 30초~1분 동안 말을 한다.
- 그 다음 사람은 그 이야기를 이어서 30초~1분 동안 말을 한다.
-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회를 가질 때까지 계속하거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한다.

② 이야기 잇기 - 글로 쓰기

- 자신의 생각을 종이 위에 쓴다(3~5분).
- 3~5분 후에 종이를 옆 사람에게 넘기고 그 글을 이어서 쓰도록 한다.
- 참가자 전원이 다 쓸 때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③ 이야기 잇기 - 그리기

- 한 집단에 4명의 사람들을 배정한다.
- 각 사람마다 그림 한 장을 그리기 시작해서, 3분 후에는 그림 그리기를 멈추어야 한다.
- 그 그림을 옆 사람에게 넘긴다.
- 이 활동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순서에 따라 종이를 돌려가면서 그림 그리기를 하는데, 전원이 다 할 때까지 계속된다.
-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맨 처음 사람이 그 그림을 갖게 되는 마지막 순번이 되어야 한다.

## IV.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시 교수·학습 방안

### 1.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의 설계

문학 수업에서 문학제재 자체는 교육내용의 기본 질료가 되고, ‘모형’을 통해 통제되는 일련의 과정은 교육의 방법으로 전이된다. 제재가 무엇이나에 따라, 또 이 제재를 통해 무엇을 학생들에게 형성해 줄 것인가에 따라 모형은 구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sup>59)</sup>

본 연구에서는 문학수업의 일반 절차모형과 창의성 신장 관련 모형을 통합하여 현대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였다. 참고한 모형은 구인환 외에서 제시한 문학 제재 수업의 일반 절차 모형(계획 단계→진단 단계→지도 단계→평가 단계→내면화 단계)과 Osborn의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CPS)이다.

일반적으로 수업모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된다. 그 하나는 수업의 일반적인 절차에 관해서 그 모형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고유한 교육적 상황이나 교육목표를 중심으로 수업을 모형화하는 것이다. 전자를 흔히 수업과정 일반절차모형이라 하고, 후자를 목표별 수업모형이라고 한다.<sup>60)</sup>

수업의 일반 절차모형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글레이저의 4단계 절차모형이 있다. 글레이저의 4단계 모형은 ‘수업목표→투입행동 진단→

59)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1, 269면.

60) 구인환 외, 위의 책, 268면.

학습지도→학습성과 평가'로 되어 있고, 한국교육개발원의 모형은 수년간에 걸친 현장 적용을 통하여 일반화시킨 수업절차 모형으로 <계획→지도→평가>의 3단계 모형의 절차과정을 '계획→진단→지도→발전→평가'로 변형·세분화시킨 것이다. 또 구인환 외는 문학의 정의적 특성상 수용자의 인격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내면화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계획 단계→진단 단계→지도 단계→평가 단계→내면화 단계'의 모형을 제시하였다.<sup>61)</sup>

구인환 외 모형은 문학수업의 가치적 틀 속에서 개별 문학작품 수용의 전과정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학교육의 본질적 목표는 이해와 감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는 수용자의 인격적 차원의 성숙과 변화를 기대하는 내면화의 과정을 전제로 함을 알았다. '내면화 단계'의 설정에 있어서 이 단계가 단기간의 수업활동 틀 속에서 평가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단계' 이후로 설정하였다.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시 교육의 측면에서도 수업의 전 단계를 다루는 거시적인 관점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수업의 지도 단계에 앞서 계획 단계와 진단 단계의 설정은 시 수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단계라 생각된다. 그러나 구인환 외 모형에서 지도 단계 다음으로 설정된 평가 단계를 하나의 독립된 단계로 두지 않고, 지도 단계에 포함시켜 학습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교수자가 피드백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내면화 단계는 학습자 간 심한 개인차를 드러낼 수 있고, 내면화과정 자체가 어떤 양적 변별에 의해서 부각되기보다는 다분히 질적 성격을 갖는다. 지도 단계 이후 학습자의 개별학습을 통해 수용하도록 하며, 이후 차시에서 진단해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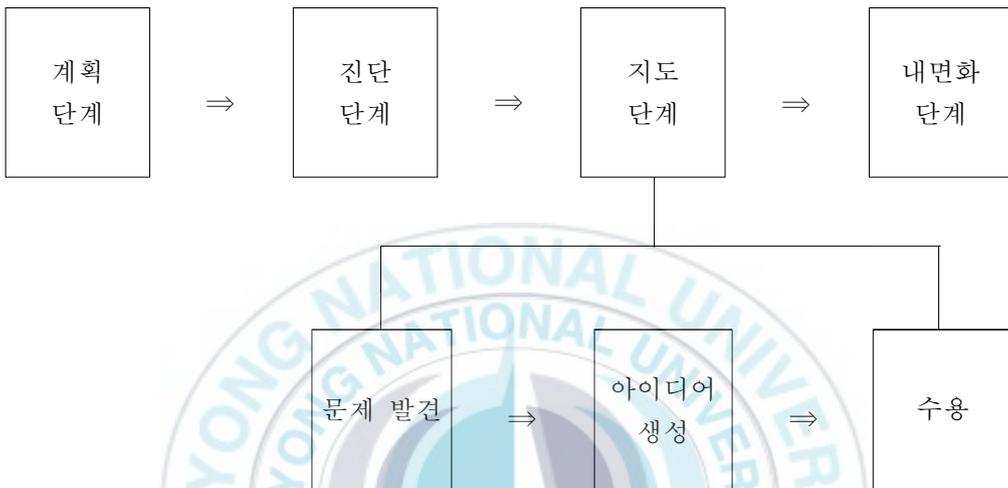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학 제재 수업의 일반 절차 모형을 '계획 단계→

---

61) 구인환 외, 앞의 책, 274~275면.

진단 단계→지도 단계→내면화 단계’로 변형해 보았다.

지도 단계는 Osborn의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의 6단계를 바탕으로 한 ‘문제 발견→아이디어 생성→수용’으로 3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설계한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시 교수-학습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3]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시 교육의 교수-학습 모형

각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진다.

**(1) 계획 단계**

우선 수업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수업 목표를 설정할 때, 교육과정상의 목표를 참조하여 교사가 작품을 해석한 결과에 따라 탄력성 있는 수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교과와 달리 문학은 자율성과 교사의 작품해석 방향이 수업목표 설정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1학기 ‘가정’이라는 시 작품을 수업에서 다루고자 할 때,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학습 목표는 대단원인 ‘4. 삶과 문학’의 목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단원 학습 목표는 넓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소단원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수업 내용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 (2) 진단 단계

실제 수업에서 다루게 되는 시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시의 소재나 분위기를 수용할 수 있는 체험은 축적되어 있는지, 시적인 감수성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하는 점들이 진단되어야 한다. 가급적 열린 시각으로 시를 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용적인 분위기 형성이 되어야 한다.

중학교 2학년 ‘가정’ 이전에 학습자들은 이미 1학년 과정에서 시를 학습하였으며, 2학년 과정에서도 1단원의 소단원인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들’이라는 시를 학습하였다. 이러한 이전 시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내면에 시에 대한 여러 기본 특성이 학습되었을 것이다. 물론 각각의 학습 목표 설정에 따른 학습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새롭게 배울 내용도 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의 학습 경험을 되살려보고, 이를 토대로 수업 활동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 (3) 지도 단계

본 수업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① 문제 발견, ② 아이디어 생성, ③ 수용의 3단계로 설계하였다.

### ① 문제 발견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표 설정과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다양한 문제 진술을 시도한다.

문제의 진술방식은 문제해결책의 방법에 영향을 준다. 문제 진술을 폭넓

게 하면, 문제해결책의 범위도 넓어진다. 반면에 문제 진술의 범위를 좁히면, 문제해결책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가정’의 학습 목표를 대단원 학습 목표를 참조하여 2가지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다면, 그 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한 활동이 수업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에 따라 시 ‘가정’에서 학습해야 할 부분을 의문 제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된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② 아이디어 생성

앞 단계에서 진술한 각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잠정적 해결책을 만들어 낸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 산출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앞 단계에서 학습 목표에 따른 의문을 제기하고 추측하는 활동을 통해 ‘가정’이라는 시에 접근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의문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제기하는 활동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살펴 본 창의성 신장을 위한 기법들을 활용하게 된다. 브레인스토밍, 스캐퍼, 강제결합법, 마인드 맵핑, 결점열거법, 희망열거법 등의 창의성 신장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수용

잠재적 해결책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최선의 것들을 선정한다. 그 다음으로 해결책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은 장애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성공적인 실행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앞 단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가장 적합한 안을 찾는 단계이다. 다양한 안을 서로 공유하고 더 나은 안을 수용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

서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와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더 나아가 정교성과 융통성을 기를 수 있다.

#### (4) 내면화 단계

이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시적인 체험의 수평적인 확대를 우선 들 수 있다. 서로 연관되는 여러 가지 시를 다양하게 읽고 감상하는 체험을 말한다. 그리고 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인 지식의 확대도 이 영역에 들어간다. 다음으로는 시적인 체험의 수직적인 심화를 필요로 한다. 이는 시를 자신의 체험으로 환원하여 감수성을 세련시키고 상상력을 키우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련의 작업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앞서 수업 시간에 살펴본 시와 제재, 주제 면에서 유사한 텍스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의 내면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까지 포함하여 진행된다면 피드백 측면에서 즉각적이기 때문에 좋겠지만, 현 학교 수업 시간이 교과서 학습 내용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의 내면화는 수업 시간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 외적인 활동에서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 단계는 학습자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요구되며, 이를 교수자는 수업 상황에서 반드시 피드백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2.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

본 장에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2단원의 '(1)바다가 보이는 교실'을 대상으로 앞에서 설계한 모형을 이용하여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지

도안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바다가 보이는 교실’을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이 시가 속한 대단원의 학습 목표가 창의성 신장을 도모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바다가 보이는 교실’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에 실린 시로, 2단원의 학습 목표는 이와 같다. 첫째,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일상 언어와 문학 언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단원은 학생들이 문학과 일상 언어의 관계를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능동적으로 해석, 수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sup>62)</sup> 그래서 이 단원은 학생들이 문학 작품의 매력과 감동을 스스로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이 단원은 모든 학생들의 통일된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차만별의 다양한 반응을 의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sup>63)</sup>

단원 구성의 방향에서부터 학습자의 다양한 생각을 요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해석과 수용상의 차이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성 신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단원으로 파악되었다.

---

62)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 국어 1-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88~89면.

63)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 국어 1-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92~93면.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단계		창의성 신장 방안 활용	창의성 구성 요소
계획		사전지식 활용하기 '새 정보와 사전지식 통합하기'	융통성, 상상력
진단		사전지식 활용하기 '예측하기'	융통성, 상상력
지도 (창의적 문제해결)	문제 발견	보완확장하기 '의문 갖기'	정교성, 독창성
	아이디어 생성	창의성 신장 위한 기법 활용 ①브레인스토밍, ②연상법	① 유창성 ② 융통성, 상상력
	수용	점검하기	정교성
내면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창의적 사고 훈련 연습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상상력

[표4]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각 단계에서의 창의성 신장 활용 방안

계획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업 목표를 설정하였다. 소단원 '(1) 바다가 보이는 교실'의 학습 목표는 대단원 학습 목표를 토대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성 기법 활용 방안도 제시하였다.

진단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현대시 학습 여부를 알아보고,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소단원 '(1) 바다가 보이는 교실'의 제목만으로 내용을 예측해보는 활동을 마련하였다.

지도 단계는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을 수용하여 '문제 발견-아이디어 생성-수용'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 '문제 발견'에서는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학습자 스스로 의문을 제기해보고, 이 시에 쓰인 소재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였다. '아이디어 생성'에서는 이 시에서 감동적이거나 인상적

인 부분을 찾아보고, ‘교실’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말해 보게 하였다. ‘수용’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 볼 수 있도록 다른 학습자의 의견을 알아보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내면화 단계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요구된다. 학교 교육에서 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도 현대시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업 시간에 현대시 학습을 해본 경험을 발판 삼아 학습자 스스로 현대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자는 수업 시간에 한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현대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가. 계획 단계

학습 대상으로 삼은 7학년 2학기 ‘2. 문학의 아름다움’의 대단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 일상 언어와 문학 언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위의 학습 목표를 참고로 하여, 소단원 ‘(1)바다가 보이는 교실’의 학습 목표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 시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시를 감상할 수 있다.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적용 가능한 창의성 신장 기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과 연상법을 들 수 있겠다. 위에서 제시한 첫 번째 학습 목표에 따른 활

동에 브레인스토밍을, 두 번째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에 연상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 나. 진단 단계

우선 이전에 배운 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7학년 1학기에 ‘1.문학의 즐거움 (1) 새봄’과 ‘3.문학과 의사 소통 (3) 호수’가 이전에 학습한 시 작품이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시 감상에 들어가기 앞서 시 제목만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추측해 보는 활동을 해 봄으로써 학습자의 다양한 사고를 유도하여 창의적 사고가 일어나도록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 다. 지도 단계

대단원		4. 문학의 아름다움		소단원	(1) 바다가 보이는 교실	차시	2/9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li> <li>·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시를 감상할 수 있다.</li> </ul>					
학습 단계	학습 과정	학습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시간	
			교사	학생			
도입	문제 발견	학습 목표 제시	인사, 출석 점검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학습목표를 읽으면서 확인한다.	출석부	5분	
		문제 제기	시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의문을 제기해본다.	시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서로 의견을 공유한다.			

			<p>- &lt;읽기 전에&gt; 제시된 두 글을 읽고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기.</p> <p>이 시에 나타난 소재들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해보도록 한다.</p>	<p>다.</p> <p>- 제시된 두 글을 음미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본다.</p> <p>이 시의 소개에 대한 느낌을 각자 배경지식을 토대로 말해본다.</p>	<p>교과서 44p</p> <p>시에 대한 흥미 불러 일으키기</p>	
전개	아이디어 생성	시 낭송	<p>‘바다가 보이는 교실’을 낭송하게 한다.</p> <p>- 시 읽기를 통해 간단한 내용을 예측해 보게 한다.</p>	<p>시 운율을 살려 낭송한다.</p> <p>- 시를 읽고 어떤 내용인지 상상해보고 이야기해 본다.</p>	<p>교과서 45p</p>	20분
		시의 아름다움 및 시의 가치 알기	<p>감동적이거나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 적고 이유를 말해보게 한다.</p>	<p>시에서 각자 스스로 감동적이거나 인상적으로 느낀 부분을 찾아 이유를 적는다. 정리한 후 이를 발표한다.</p>	<p>학습지 1 (브레인 스토밍)</p>	
		자신의 경험과 관련 지어 시 감상	<p>‘교실’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고, 이 시에서의 ‘교실’은 어떤 분위기인지 말해보게 한다.</p>	<p>자신의 경험을 되살려 ‘교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보고, 이 시에서의 교실은 어떤 분위기인지 상상하여 정리해</p>	<p>학습지 2 (연상법)</p>	15분

		하기	다.	본다.		
정리	수용	다양한 의견 공유	시의 아름다움에 대한 학습자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한다.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신의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5 분
		다음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 배울 '소나기'에 대해 언급한다.	다음 시간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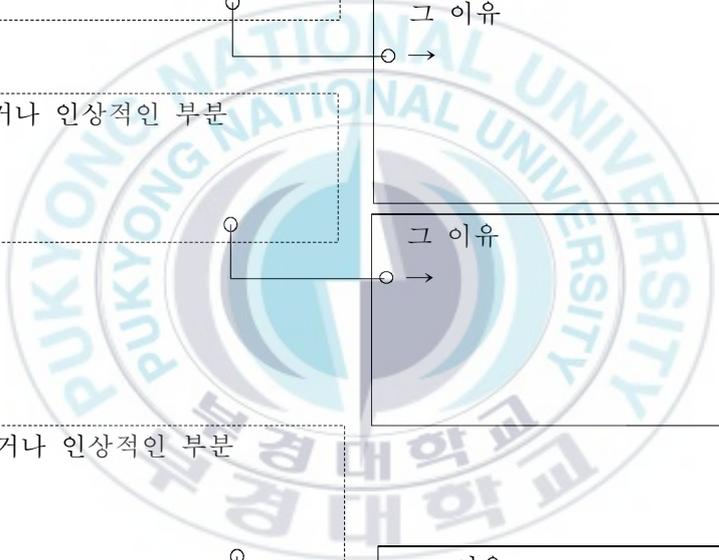
▷ 교수 · 학습 자료

1. <학습지 1>

2. 문학의 아름다움 (1) 바다가 보이는 교실

☆ ‘바다가 보이는 교실’에서 감동적이거나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 적고 그 이유도 간단하게 1~2문장으로 요약하여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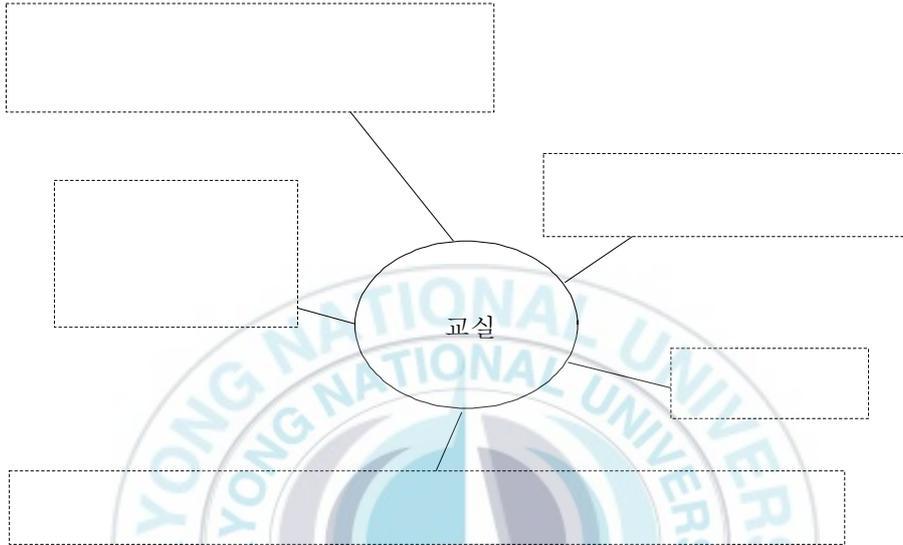
감동적이거나 인상적인 부분 →	그 이유 →
감동적이거나 인상적인 부분 →	그 이유 →
감동적이거나 인상적인 부분 →	그 이유 →



2. <학습지 2>

2. 문학의 아름다움 (1) 바다가 보이는 교실

☆ '교실' 하면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 자유롭게 써 봅시다.



☆ 이 시에서의 '교실'은 어떤 분위기인지 자유롭게 써 봅시다.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solid border, intended for students to write their response to the question about the atmosphere of the classroom in the poem.

▷ 학습활동

<7학년 2학기>			
대단원	2. 문학의 아름다움	소단원	(1) 바다가 보이는 교실
내용학습 64)	<p>‘바다가 보이는 교실’을 다음과 같이 감상해 보자.</p> <p>1. 시를 낭송해 보고, 이 시의 분위기와 느낌이 어떠한지 말해 보자.</p> <p>2. 이 시에 나오는 ‘열이’는 어떤 아이일지, 이 시의 화자는 누구일지 생각해 보자.</p>		
목표학습 65)	<p>다음 글을 참고하여, 문학의 아름다움과 관련하여 물음에 답해 보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시는 생각이나 느낌을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언어 예술이다. 그러므로 시에 쓰인 말에는 사전적인 뜻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서 비유와 상징, 심상 등의 독특한 시적인 표현 장치가 필요하다.</p> <p>시에 쓰이는 말에는 빛깔이나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등과 같이 심상을 나타내는 것이 많다. 심상이란, 시어를 통해 마음 속에 상상되는 모습이나 느낌을 말한다.</p> </div> <p>1. ‘바다가 보이는 교실’에서 심상이 잘 드러나는 구절을 찾아보자.</p> <p>2. 이 시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자.</p>		

‘바다가 보이는 교실’의 학습활동은 내용학습 2문항과 목표학습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내용학습 2번 문항은 보완확장하기의 하위 영역 활동인 ‘상상하기’로, 목표학습 1번 문항은 반응하기의 하위 영역 활동인 ‘심상 형성하기’, 2번 문항은 반응하기의 하위 영역 활동인 ‘줄거리 또는 주제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반응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64)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1-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46면.

65)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1-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47면.

내용학습 1번 문항만 창의적 사고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재구성해보려고 한다. 내용학습 1번 문항은 개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사전지식 활용하기의 하위 영역 활동인 ‘이야기 나누기’를 활용한 방안이다. 학습자 각각 스스로 자신이 시를 낭송한 후, 분위기와 느낌에 대해 적어보고, 이를 짝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을 짝과 나누어 봄으로써 다양한 생각을 접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확산적 사고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이 활동은 유창성을 길러줄 수 있다.

#### 라. 내면화 단계

시적인 체험의 수평적인 확대, 수직적인 심화를 위한 단계이다. 수업 외적으로 학습자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수업 시간 내에 내면화 단계까지 다뤄지기에는 정해진 수업 시수는 부족하다. 교과서 구성상 대단원 마무리에 있는 보충·심화도 수업 시간 부족을 이유로 다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내면화 단계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보충·심화 부분이 수업 시간 내에 잘 다뤄지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이 단계에서 다뤄보려고 한다. 학습 목표에 맞추어 보충·심화에 실린 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스스로 학습해 보도록 한다.

‘2. 문학의 아름다움’ 보충·심화에 실린 ‘가을 우체부’라는 시를 읽어 보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보도록 한다.

‘가을 우체부’를 읽고 시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표현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이유도 말해 보자.

‘가을 우체부’를 읽고 ‘우체부’ 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 보고, 이 시를 읽고 느껴지는 분위기를 이야기해 보자.

1. ‘가을 우체부’를 읽고 시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표현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이유도 말해 보자.

시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표현	그 이유

2. ‘가을 우체부’를 읽고, ‘우체부’ 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 보자. 그리고 이 시를 읽고 느껴지는 분위기를 이야기해 보자.

이 시를 읽고 느껴지는 분위기  
→

- <자기 점검>
1. 작품을 읽고, 작품이 주는 의미를 말할 수 있다.
  2. 작품을 읽고, 표현이 아름다운 곳을 찾을 수 있다.
  3. 작품을 읽고, 작품이 주는 감동을 말할 수 있다.

## V. 결론

현대 사회는 지식 기반 사회로 인간의 창의적 사고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전에는 지식을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식은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한 지식은 단순한 하나의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개개인은 창의적 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분야에서든 창의적인 사고는 유용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에 따라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창의성은 단기간에 신장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특성이지만, 그 특성이 발휘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내재된 상태로 남게 된다. 인간 내부에 자리한 창의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사고의 방향을 창의적 사고 쪽으로 유도하여 이를 학습하게 한다면 내재되어 있던 창의성이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 사고가 발휘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창의적 사고 훈련을

반복한다면 다른 상황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학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어과 교육에서 창의성 신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중에 문학은 창의성을 신장시키기에 적합하다. 이는 문학이 상상력을 토대로 만들어진 산물로 그 해석에 있어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양한 문학 장르를 대상으로 하여 창의성 신장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시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적은 편이다. 이에 교과교육의 맥락에서 현대시를 대상으로 한 창의성 신장 방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시는 표현에 있어 함축성이 강하고, 말하는 이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 개개인의 독창적인 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장르이다. 시의 리듬은 상징의 암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이미지와 결합되어 시인이 전달하고자 한 관념을 선블리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심상은 언어에 의해 재현되는 것으로 다양한 감각으로 형상화될 수 있다. 그리고 시의 의미는 일상어나 과학적 언어처럼 1:1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알아 본 후, 시 교육에서의 창의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교과 교육의 맥락에서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시 단원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활동에서의 창의성 요소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창의성 개발 및 신장 방안을 살펴보았다. 창의적 사고 과정이 문제 해결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Osborn의 창의적 문제해결모델을 제시하였고, 다양한 창의성 신장 기법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여 제7차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에 적용해 보았다.

먼저 창의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창의성과 시 교육

에 대한 논의에 앞서 창의성과 시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시의 특성인 음악성, 형상성, 함축성이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창의성 신장을 위한 적합한 장르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시의 특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시 교육의 목표가 설정되기 때문에 시 교육에서 창의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다른 장르에 비해 창의적 사고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교과 교육의 맥락에서 교과서의 시 단원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활동에서 창의성 요소를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한 결과 창의성 신장에 도움이 되는 확산적 사고를 유발하는 활동이 학습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창의성 신장을 위한 방안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과 다양한 창의성 신장 기법을 알아보았다.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 전 단계로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였다. 문학 제재 수업의 일반 절차 모형(계획 단계→진단 단계→지도 단계→평가 단계→내면화 단계)과 Osborn의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CPS)을 참고로 하였다.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시 교육의 측면에서도 수업의 전 단계를 다루는 거시적인 관점이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문학 제재 수업의 일반 절차 모형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지도 단계 다음으로 설정된 평가 단계를 지도 단계 내에 포함시켜 학습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교수자가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Osborn의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CPS)은 6단계를 ‘문제 발견→아이디어 생성→수용’의 3단계로 구성하여 지도 단계에서 실현되도록 하였다. 새롭게 구안된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시 교수·학습 모형은 ‘계획 단계→진단 단계→지도 단계→내면화 단계’로, 지도 단계는 ‘문제 발견→아이디어 생성→수용’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7학년 2학기 2단원의 ‘(1)바다가 보이는 교실’을 대상으로 적용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현대시 교수-학습으로 학습자의 창의성 신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운문문학의 대표인 시는 음악성, 형상성, 함축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창의적 사고 발현에 적합한 장르이다. 시의 장르적 특성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 신장을 도모해볼 수 있다. 또한 시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모형을 개발하여 봄으로써 창의성 신장을 위한 장기적인 시 교수-학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의 구체적 적용을 통해 장기적인 학습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새롭게 개발한 교수-학습 모형을 수업 현장에 적용해 그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과 시를 통한 창의성 신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어과 교육의 맥락 내에서 창의성 요소를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하였다는 점, 창의성 신장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시 교수·학습 방안의 모색과 실현은 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대 사회는 물론이고 미래 사회에서도 창의적 사고 능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고등 사고 능력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대시 교육 방안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 ▣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 국어 1-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1-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2-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3-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 <단행본>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1.

김영채, 『창의적 문제 해결』, 교육과학사, 1999.

김은전, 『현대시 교육의 쟁점과 전망』, 월인, 2001.

김종태 편, 『시와 소설을 읽는 문학교실』, 하늘연못, 2000.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9.

김춘일, 『창의성 교육, 그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99.

박병기, 『창의성 교육의 기반』, 교육과학사, 1998.

박영태, 『창의성의 별』, 학지사, 2002.

유성호, 『현대시 교육론』, 역락, 2006.

윤길근,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방법』, 문음사, 2004.

이주섭, 『국어과 창의성 신장 방안』, 박이정, 2004.

하주현, 『창의력』, 시그마프레스, 2006.

한순미, 『창의성』, 학지사, 2005.

<학술지 & 논문>

- 강경순, 「창의적 사고를 통한 시 교육 지도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강현석·김창호·이재순,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과 교육 과정설계 원리와 방향」, 『중등교육연구』, vol 51, 2003.
- 고경옥, 「중등학교 창의성 교육 실태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권금홍, 「창의성 신장을 위한 전래동화 지도 방안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김서영, 「창의성 신장을 위한 설화 교육의 교수-학습 모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김윤범, 「국어과 창의적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적용이 창의성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김중신, 「창의적 사고력과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4, 1999.
- 김혜영, 「이미지의 작용방식과 상상력 교육」, 『국어교육』, vol 105, 2001.
- 박운우, 「중등과정 시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연구」, 『문학교육학』 18, 2005.
- 박은실, 「한시를 통한 창의성 신장 교수·학습 방법 연구 : 제7차 문학 교과서 수록 한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윤미원, 「창의성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현대시 교육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심옥화,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 전윤희, 「창의성 신장을 위한 소설교육 방안 연구-작품의 수용과 창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정구향,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안 및 교수

학습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세미나 자료집, 1998.

정희자, 「창의성 신장을 위한 전래동화 지도 방안 연구-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최성아,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고전 시가 교수·학습 방법 연구-정철의 ‘관동별곡’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